

#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 土器에 대한 考察

朴 升 圭\*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晉州式” 土器文化的 檢討 |
| II. 遺蹟과 遺物의 紹介  | V. 맺음말             |
| III. 屬性의 檢討와 編年 |                    |

## I. 머리말

晉州를 중심으로 한 南江流域에 散在한 伽耶遺蹟에 대한 考古學的 調査는 최근들어 晉州 加佐洞古墳群과 水精峰 2號墳 및 7號墳 出土 遺物이 學界에 알려진 바 있으나<sup>1)</sup> 아직까지 미진한 狀態로서, 歷史記錄이 零星한 이 地域의 古代史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집중적인 調查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慶尙大學校博物館에서는 數年 前부터 晉州地域의 古代文化와 歷史를 復元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 地域에 대한 地表調査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遺蹟과 資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遺蹟과 資料들 중 일부가 學界에 公표되어<sup>2)</sup> 이 地域의 古代史를 復元하는데 있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공개의 資料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遺蹟과 出土資料들이 이 地域의 古代文化와 歷史를 復元하는데 있어 중요한 資料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遺蹟 중의 하나인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 土器를

\* 慶尙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 1) 趙榮濟·朴升圭, 『晉州加佐洞 古墳群 -1~4號墳-』, 慶尙大學校博物館, 1989.  
定森秀夫 외, 『韓國 慶尙南道 晉州水精峰2號墳·玉峰7號墳 出土遺物』, 『伽耶通信』 19·20 合輯, 1990. 12.
- 2) 趙榮濟, 「水平口緣壺에 대한 一考察 -西部慶南 伽耶後期土器의 一様狀-」, 『慶尙史學』 1, 1985. 6.  
    ,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2, 1986. 6.  
    , 「三角透窓高杯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7, 1990.  
趙榮濟·柳昌煥, 「威安 院北里遺蹟 採集土器의 檢討」, 『慶南文化研究』 13, 1991.  
朴升圭, 「威安 郡北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考察」, 『晉州專門大學論文集』 14, 1991.  
金貞禮, 「晉陽群 一班城面 院堂遺蹟에 대하여」, 『考古研究』 7, 1991. 5.

소개하고자 하며<sup>3)</sup>, 더불어 이들 토기에 대한 檢討를 통해 5世紀代의 晋州地域 土器文化의 特性과 分布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遺蹟과 遺物의 紹介

### 1. 遺蹟의 位置와 現狀(圖面 1)

여기에 紹介되는 資料들은 모두 正式發掘調査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遺構의 구조, 遺物의 公伴關係 등이 명확치 않아 이를 통한 논리의 전개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檢討는 앞으로의 正式發掘調査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本稿에서는 基礎學術資料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新 資料를 소개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晋陽 雨水里遺蹟은 慶南 晋陽郡 鳴石面 雨水리에 위치하며, 晋州에서 山淸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에 형성되어 있다. 이 遺蹟은 晋州에서 서북쪽으로 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곳은 南江의 소지류인 나불천 상류역으로 遺蹟은 海拔 200m정도의 야산에서 뺨어내린 稜線의 末端部인 50~70m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遺蹟이 광범위하게 分布하기 때문에 이들 地域을 A~E區域으로 나누어 調査하였으며, 이곳에는 封土墳을 비롯하여 石槨墓, 土墳墓, 甕棺墓가 混在하고 있는 대규모의 古墳 密集地域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遺蹟의 대부분이 도굴 또는 개간에 의해 이미 파괴된 狀態이었다. 이곳에서 확인된 封土墳은 直徑 8m정도로서 内部構造는 석축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豎穴式石槨墓는 平面形態가 長方形으로 築造狀態는 정연한 편이었다. 또 돌시설이 전혀 없는 도굴갱의 존재로 보아 土墳墓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집된 資料를 통해서 볼때 이 遺蹟은 주변의 晋州 加佐洞古墳, 泗川 禮樹里古墳, 山淸 中村里古墳, 晋陽 배만골遺蹟 등과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2. 資料의 紹介

#### 1) 高杯

##### ① 有蓋高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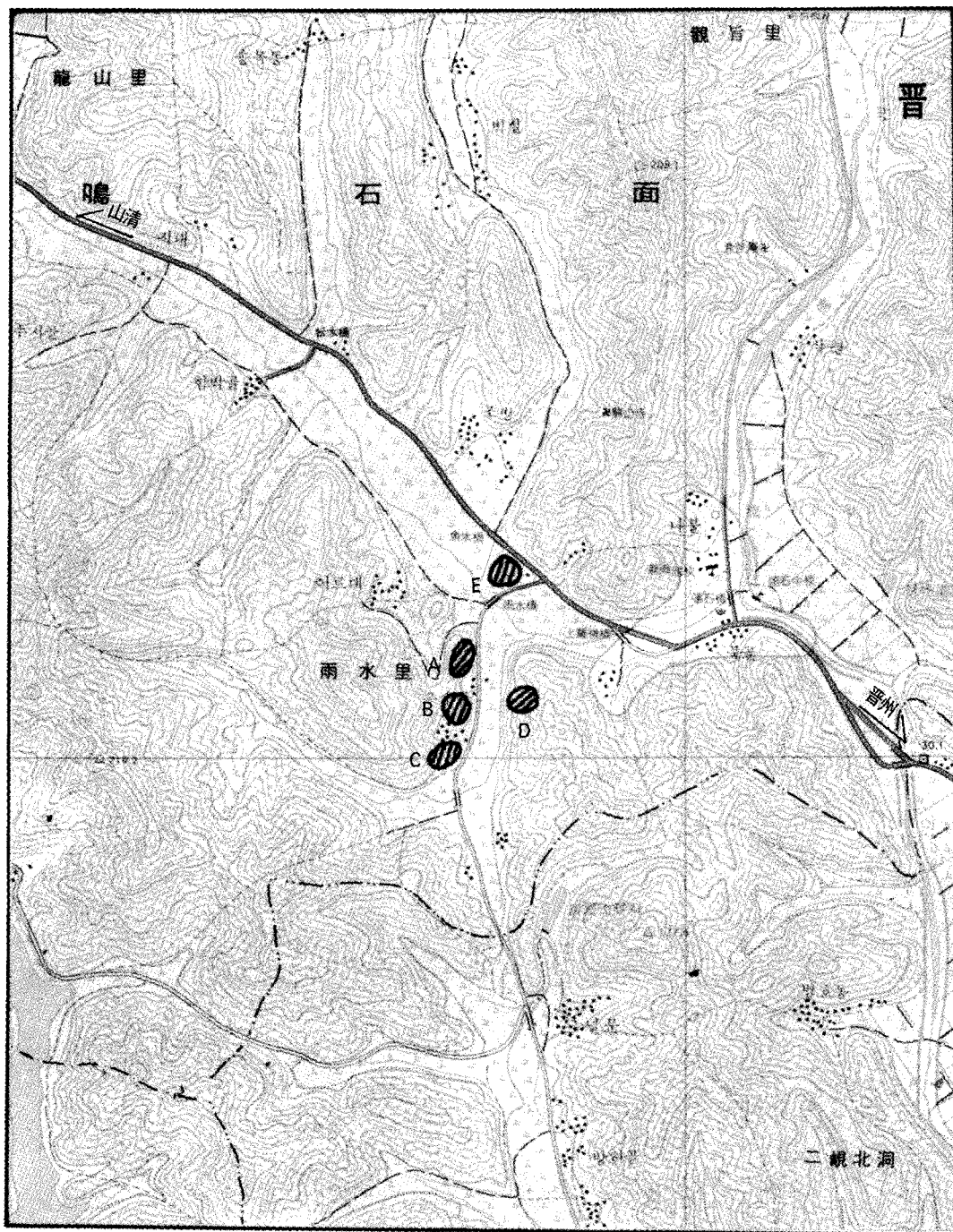
圖面 2~②는 E區 採集品으로 臺脚만 반정도 남아 있다. 明灰青色 또는 灰黃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筒形高杯의 계통을 따르는 것으로, 3열의 菱形抽印文이 찍혀있고 脚段은 약한 凹狀을 이룬다.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기포가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殘器高：5.9cm, 底徑：12.8cm

圖面 2~①은 E區 채집품으로 杯部만 잔존하고 있다. 明灰青色 또는 灰黃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3) 本 遺蹟은 앞서 紹介된 바 있으나, 그후의 追加地表調査에서 E區域의 확인과 함께 新資料가 多出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追加資料를 中心으로 紹介하고자 한다.

李海蓮, 「西部慶南의 5世紀 前半代 古墳遺蹟의 一例 - 晋陽郡 雨水里A遺蹟 -」, 『伽耶通信』, 1984. 7. 參照.



圖面1. 遺蹟位置圖( 표시부분)

축척 1 :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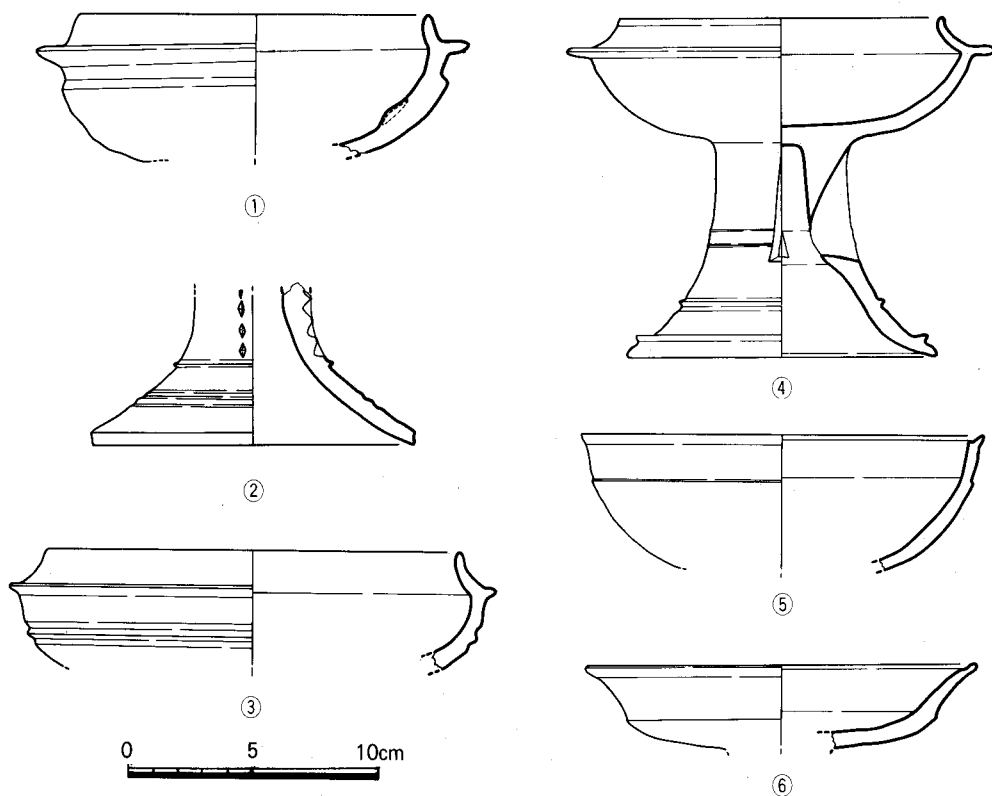
陶質製로서 도면 2~②와 一括品일 가능성도 있다. 口緣과 杯部 내연에는 청녹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일부 산화되었으며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殘器高：5.9cm, 口徑：13.9cm

圖面 2~③은 A區 채집품으로 杯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灰青色 또는 일부 灰白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이다.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殘器高：4.7cm, 推定口徑：16.3cm

圖面 4~⑥은 A區 채집품으로 杯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연회청색 또는 연회흑색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器面이 대부분 산화박리된 狀態이다. 器面에 기포가 일부 있으며, 杯身은 목리후 회전물손질을 했으며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圖面2.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土器(古式段階)

殘器高：4.6cm, 推定口徑：13.2cm

② 三角透窓高杯

圖面 2~④는 A區 채집품으로 灰黑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이다. 臺脚에는 三角透窓이 3개 뚫려 있으며, 臺脚 中位의 돌선은 부분적인 현상으로 명확한 突帶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器面에는 기포가 일부 형성되어 있고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器高：13.6cm, 口徑：12.8cm, 底徑：12.1cm

圖面 3~①은 E區 1號 도굴갱에서 수습된 것으로서, 灰黑色 또는 暗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이다. 臺脚에는 三角透窓이 3개 뚫려 있으며, 臺脚 下方의 突帶는 띠상으로 일부 중첩되게 둘러져 명확하지 않다.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器高：12.9cm, 口徑：13.4cm, 底徑：10.0cm

圖面 3~②는 圖面 3~①과 共伴 수습된 것으로서 臺脚만 잔존하고 있다. 色調, 燒成, 胎土, 形態에서 圖面 3~①과 같다.

殘器高：13.4cm, 底徑：10.2cm

圖面 4~①, ②는 E區 채집품으로 극히 파손된 狀態로 수습되어 一括關係가 불명확하지만 燒成, 色調, 胎土 등으로 보아 一括品일 가능성이 높다. 明灰青色을 띠는 燒成 불량한 陶質製로서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臺脚에는 三角透窓이 3개 뚫려 있다.

推定口徑：11.6cm, 底徑：10.3cm

圖面 4~③, ④<sup>4)</sup> 역시 E區 채집품으로 一括品일 가능성이 높다. 圖面 4~①, ②와 形態, 燒成, 色調 등에서 거의 비슷하다.

推定口徑：11.6cm, 底徑：10.6cm

圖面 4~⑨는 E區 채집품으로 三角透窓高杯의 杯部로 추정된다. 灰黑色을 띠는 燒成보통의 陶質製로서 杯部에는 목리흔과 각기흔이 일부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整面을 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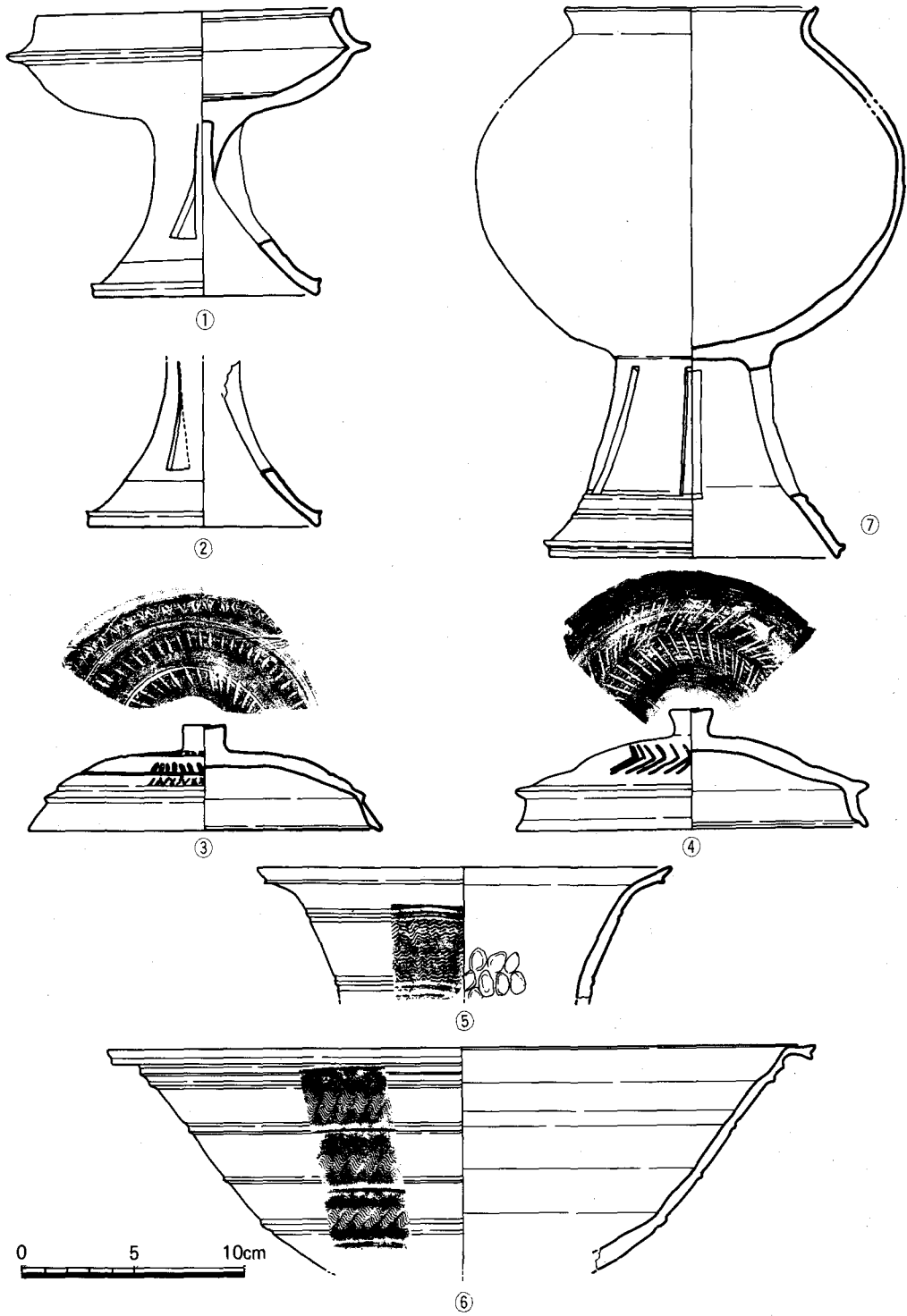
殘器高：5.9cm, 推定口徑：15.6cm

圖面 4~⑧은 E區 채집품으로 口緣端部 처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圖面 4~⑨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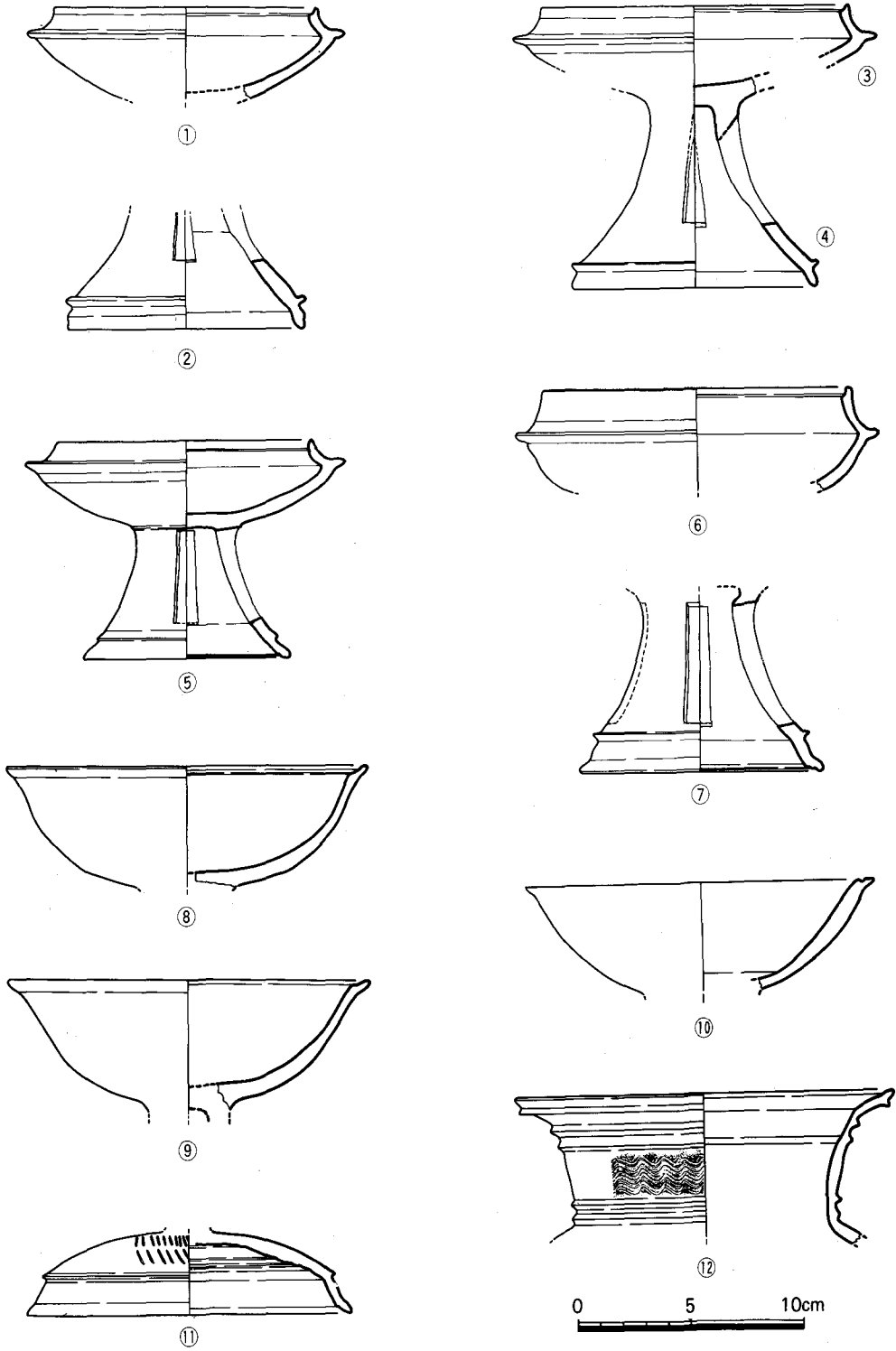
殘器高：5.8cm, 推定口徑：15.8cm

圖面 4~⑩은 A區 채집품으로 三角透窓高杯의 杯部로 추정된다.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口緣端部の 기울기는 圖面復元한 관계로 명확치 않으나 杯身의 전체적인 形態로 보아 평탄면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4) 本 資料는 舊稿에서 一段長方形透窓高杯로 紹介되었는데, 이는 결실된 臺脚을 圖面復元하는 過程에서 筆者가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本稿에서 三角透窓高杯로 訂正한다. 이 점 널리 사과드리며, 資料利用에 錯誤없기를 바란다. 朴升圭, 『一段長方形透窓高杯에 대한 考察』, 東義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0. 12. p. 11 및 p. 77 圖面 6~⑤.



〈圖面3〉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土器(E區 1號 도굴갱 一括品)



圖面4.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土器

殘器高：4.8cm, 推定口徑：13.8cm

圖面 2~⑥은 A區 채집품으로 杯部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口緣端部の 形態로 보아 三角透窓無蓋高杯의 杯部일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치는 않다.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殘器高：3.3cm, 推定口徑：15.2cm

圖面 2~⑤는 A區 채집품으로 三角透窓高杯의 杯部로 추정되나 명확치 않다. 灰黑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粘土이다. 胎土와 器形 등으로 보아 異質의인 느낌이 다수 있으나 명확한 것은 알 수 없다.

殘器高：5.3cm, 推定口徑：15.8cm

### ③ 一段長方形透窓高杯

圖面 4~⑦은 A區 채집품으로 대각편만 잔존하고 있다.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臺脚에는 細長方形透窓이 4개 뚫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殘器高：7.8cm, 推定口徑：10.5cm

圖面 4~⑤는 D區 채집품으로 臺脚과 杯部가 1/3정도만 잔존하고 있다. 회갈색 또는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臺脚에는 細長方形透窓이 뚫려 있으며 圖面復元한 관계로 정확한 갯수 파악은 어려운 狀態이며, 杯身에는 깎기를 했다.

器高：10.1cm, 推定口徑：11.2, 推定底徑：8.9cm

### 2) 水平口緣壺

圖面 5~①은 D區 채집품으로 동체와 頸部가 반정도 잔존하고 있다. 灰黑色을 띠는(內面 灰青色)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동체에는 암녹갈색의 자연유가 흘러내리면서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산화바라 되었다. 頸部에는 조잡한 密集波狀文이 희미하게 施文되어 있으며 胴上部와 頸部에는 회전물손질 整面을 胴下方은 斜格子打捺을 하였다.

器高：16.8cm, 口徑：15.6cm, 胴最大徑：15.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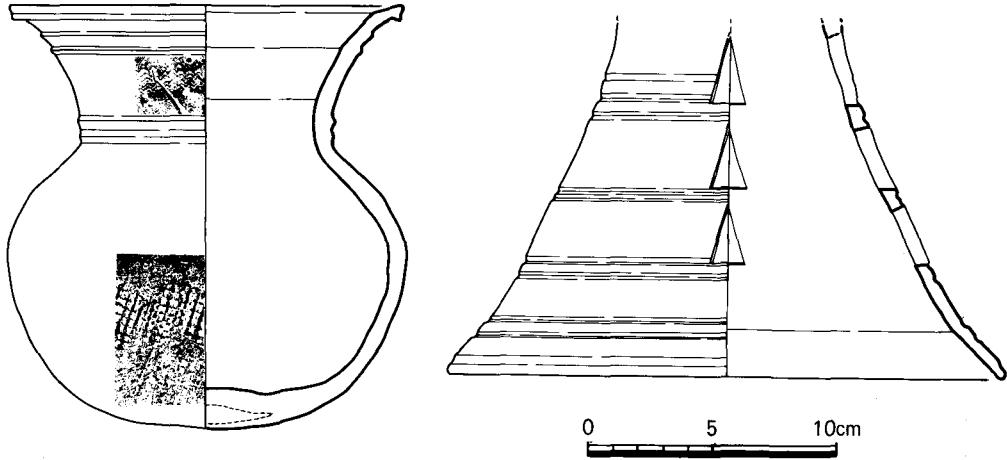
圖面 3~⑤는 E區 채집품으로 頸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회백색을 띠는 燒成보통의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頸部 內面에는 頸部 接합시의 指頭押痕이 조밀하게 남아 있으며 外면에는 6齒具의 施文具에 의해 3段으로 接속시킨 密集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다.

殘器高：5.9cm, 口徑：18.4cm

圖面 4~⑫는 A區 채집품으로 頸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흑색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頸部에는 16齒具의 密集波狀文이 施文되어 있다.

殘器高：6.3cm, 推定口徑：16.5cm





圖面5. 晉陽 雨水里遺蹟 採集土器

### 3) 臺附壺(圖面 3~⑦)

E區 1號 도굴갱에서 수습되었으며 口緣部와 胴體部가 접합되지 않아 口緣部의 기울기 복원은 명확하지 않다. 灰黑色(內面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胴上部와 臺脚은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胴下方은 굽은 平행타날을 엇갈리게 하였다. 臺脚에는 細長方形透窓이 5개 뚫려 있으며 器面은 부분적으로 산화박리 되었다.

推定口徑：11.1cm, 胴最大徑：19.2cm, 底徑：12.8cm

### 4) 器臺

圖面 5~②는 A區 채집품으로 筒形器臺의 하단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灰黑色(內面 一部 灰紫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臺脚에는 三角透窓이 일렬로 4곳에 뚫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殘器高：14.1cm, 底徑：22.0cm

圖面 3~⑥은 E區 1號 도굴갱 수습품으로 杯部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灰黑色(內面 淡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杯身에는 3段으로 9~12齒具의 密集波狀文을 施文했으며 胴下方에는 폭이 넓은 平행타날을 했다.

殘器高：9.9cm, 口徑：31.4cm

### 5) 蓋

圖面 3~④는 E區 1號 도굴갱 수습품으로 灰青色을 띠는 燒成보통의 陶質製이다. 器面은 목리후 회전물손질 整面을 했으며 胎土는 細砂가 약간 혼입된 粘土이다.

器高：5.3cm, 底徑：15.5cm

圖面 3~③ 역시 E區 도굴갱 수습품으로 灰黑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이다.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身部 上段에는 유층문과 엇갈린 列點文이 施文되어 있다.

器高：4.7cm, 底徑：15.6cm

圖面 4~⑪은 D區 채집품으로 灰青色을 띠는 燒成良好한 陶質製로서 器面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했으며 胎土는 精選된 粘土이다. 身部 上面에는 形式的인 列點文이 2단으로 施文되어 있으며, 內面에는 강한 회전물손질조정에 의해 홈을 형성하고 있다.

殘器高：3.8cm, 底徑：14.2cm

### III. 屬性의 檢討와 編年

#### 1. 器種別 屬性의 檢討

##### 1) 高杯

雨水里遺蹟 採集 資料에서 보이는 高杯는 크게 透孔高杯, 三角透窓高杯, 一段長方形透窓高杯가 있으며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 屬性分析을 통해 時間性과 分布圈을 추출함과 동시에 相互關係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透孔高杯(圖面 2~①, ②)

一括로 採集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나, 圖面 2~①, ②는 동일지점에서 채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色調, 燒性, 胎土등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一括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일단一括品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살펴보면, 杯部(圖面 2~①)는 杯身이 깊고 크게 만곡하며, 뚜껑 받이턱이 크게 돌출된 形態로서 口緣端部는 둥글게 처리된 形態이다. 또한 杯身 上段에 1조의 突帶가 달려져 있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로 간취되며, 이와 비슷한 杯部의 形態를 가진 자료로는 威安 院北 採集品<sup>5)</sup>, 馬山 縣洞 37號墳<sup>6)</sup>, 晉陽 寺奉 各곡 採集品<sup>7)</sup>, 三嘉 1號 封土 出土品<sup>8)</sup>, 漆谷 深川洞 出土品<sup>9)</sup> 등이 있다. 또한 臺脚(圖面 2~②)도 古式陶質土器인 筒形高杯의 型式系統을 따르고 있음이 菱形의 透孔과 명확한 突帶의 처리, 脚端部의 形態 등에서 확인되며, 이와 유사한 透孔技法을 보여주는 資料는 馬山 縣洞遺蹟, 陝川 苧浦里A·B區 遺蹟<sup>10)</sup>등 西部慶南地域에 다수 分布하고 있다.

5) 趙榮濟·柳昌煥, 「威安 院北里遺蹟 採集資料의 檢討」, 『慶南文化研究』 13, 1991, p. 256.

6) 李盛周·金亨坤, 『馬山縣洞遺蹟』, 昌原大學博物館, 1990, p. 129.

7) 趙榮濟, 「三角透窓高杯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 7, 1990. 12, p. 67.

8) 沈奉謹, 『陝川三嘉古墳群』, 東亞大學校博物館, 1982, p. 116.

9) 朴光烈, 「漆谷 深川洞 出土 古式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古文化』 38집, 1991, p. 22.

10) 鄭永和·梁道榮·金龍星, 『陝川苧浦里古墳A發掘調查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1987.

朴東百·秋淵植, 『陝川苧浦里B古墳群』, 昌原大學博物館, 1988.

따라서 雨水里遺蹟의 透孔高杯는 古式陶質土器의 共通樣式的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資料임을 알 수 있다.

## ② 三角透窓高杯

三角透窓高杯는 크게 有蓋式과 無蓋式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研究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sup>11)</sup> 기왕의 研究에 의하면 有蓋式은 I 式으로 分類한 것으로서 이들은 다시 臺脚의 形態, 口緣端部의 形態차이에 의해 Ia, Ib 式으로 세분되며, 形態의 다양성과 定型化된 型式의 차이에 의해 時間性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檢討된 바 있다.

圖面 2~④는 Ia 式으로 분류되며 杯部는 圖面 2~①의 透孔高杯와 유사한 것으로서 약간의 新式要素가 있지만 거의 동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며, 臺脚 역시 伽耶土器 共通樣式期의 型式要素를 보여주고 있다.

圖面 3~①, ②와 圖面 4~①-④는 모두 Ib 式으로 分類되지만 兩者는 크기, 色調, 胎土, 燒成 등에서 器高가 점점 낮아지며, 또 燒成이 점차 불량해지고 色調가 회흑색계통에서 연회 청색계통으로 바뀌는 것 등은 이 地域의 一段長方形透窓高杯와 無蓋三角透窓高杯의 新式資料에서 보이는 變化樣相과도 類似하므로 兩者는 어느 정도의 時期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圖面 3~①은 Ia 式의 三角透窓高杯의 系統을 따르는 것으로서 臺脚의 突帶가 形式的이고 杯身과 뚜껑받이턱의 形態變化에서 前段階에 비해 後出하는 型式要素를 보여준다. 그리고 圖面 4~①-④는 燒成이 불량한 것으로서 杯身의 만곡상태가 미미하며 臺脚의 突帶가 완전히 사라지며, 전체적인 器高의 縮小 등으로 보아 圖面 3~①보다 新式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檢討結果 有蓋式三角透窓高杯의 型式變化를 보여주는 屬性狀態는 口緣端部가 둥근 形態에서 口緣端部 내연에 1조의 홈이 만들어지며, 뚜껑받이턱의 돌출도가 점차 미미해지며, 杯身의 만곡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臺脚은 突帶가 명확한 狀態에서 形式的으로 둘러지다가 점차 사라지는 變化를 보인다. 또 전체적으로 燒成상태가 약해지며, 器高가 낮아지고 있음이 간취된다.

다음으로 無蓋式三角透窓高杯는 臺脚의 形態變化에 의해 IIa, IIb 式으로 구분하여 檢討한 바 있으며<sup>12)</sup>, 變化의 요인은 有蓋式과 同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雨水里遺蹟의 無蓋三角透窓高杯는 臺脚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杯部를 통해서만 檢討가 가능한데, 圖面 2~⑤는 杯身上段에 1조의 突帶가 둘러지며 口緣端部의 形態가 짧고 배심이 깊은 것으로 보아 古式인 IIa 式에 해당되며, 圖面 2~⑥는 前段階의 無蓋高杯 전통을 보여주고 있으나 口緣端部가 三角透窓高杯의 특징적인 形態를 따르고 있으므로 일단 無蓋三角透窓高杯의 범주에 두고자 하며, 杯部 中位의 突帶가 꺾임에 의한 形式的인 突帶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前段階 無蓋高杯의 新出要素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高杯는 臺脚의 形態를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型式段階의 파악은 어려운 狀態로서 일단 Ib 式에서 IIb 式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段階에 두고자

11) 趙榮濟, 註7)의 前掲書, 1990. 12.

12) 趙榮濟, 註7)의 前掲書, 1990. 12.

한다.

圖面 4~⑧, ⑨는 모두 IIb式에 해당되는 新式의 無蓋高杯이지만 燒成상태가 점차 약해지고, 杯身의 形態가 만곡점의 하강에 의해 직선적인 양상으로 바뀌며, 口緣端部 내측의 홈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이 간쥬된다.

### ③ 一段長方形透窓高杯

一段長方形透窓高杯에 대한 研究는 이미 地域型式의 分析과 발전양상, 波及과 交流에 관한 것이 檢討된 바 있으며<sup>13)</sup>, 이에 의하면 雨水里遺蹟의 一段長方形透窓高杯는 IIIaA4式의 晋州式에 해당된다. 이들은 杯部의 形態에 있어서 이 地域의 三角透窓高杯와 共有하고 있음이 山淸 中村里 採集品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杯部 形態가 이 地域의 一時期 代表的인 型式으로 존재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圖面 4~⑦은 晋州 加佐洞 1號墳 出土品과 유사한 資料로서 晋州地域에서 一段長方形透窓高杯가 定型化된 段階의 型式이다. 또 圖面 4~⑤는 器高가 낮으며 杯身 下方에 각기가 행해진 점으로 보아 新式的인 要素를 보여준다.

이러한 一段長方形透窓高杯는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에 광범하게 分布하고 있으며 高靈이나 威安地域의 資料와는 型式의인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 이 地域의 代表的인 地域型式으로 5世紀 後半代~6世紀 前葉에 三角透窓高杯와 함께 이 地域 高杯文化의 主類로 존재하고 있다.

## 2) 水平口緣壺

水平口緣壺에 대한 기왕의 研究에서는 年代와 分布圈에 대한 檢討를 통해 西部慶南 伽耶後期 土器文化의 一様狀으로 파악한 바 있다.<sup>14)</sup>

雨水里遺蹟에서 채집된 水平口緣壺는 전형적인 形態로서, 이러한 水平口緣壺는 최근의 新자료가 보여주는 共伴關係에 의해서 型式變化를 보여주는 屬性들의 추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즉, 口緣上段部의 처리가 외경상 또는 수평상으로 외절하는 形態로 바뀌어지며, 頸部의 외경상태는 곡선적인 것에서 직선적인 것으로의 變化가 나타나며, 胴체와 足부의 形態는 甍타원상 또는 逆梯狀의 源에서 구형의 平저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器高에서도 점차 소형화 되고 있다.

雨水里遺蹟에서 채집된 水平口緣壺는 圖面 3~⑤가 型式變化에서 약간 선행하고 있으나 거의 동시기의 것들로 보이며, 이들은 晋陽 배만골遺蹟을 비롯한 晋州 周邊地域에서 광범하게 分布하며 이 地域의 一時期 代表型式으로 존재한다.

## 3) 器臺

器臺는 鉢形器臺와 筒形器臺가 채집되었는데 圖面 3~⑥은 晋陽 배만골遺蹟 出土品, 晋州

13) 朴升圭, 註4)의 前掲書, 1990. 12.

14) 趙榮濟, 「水平口緣壺에 대한 一考察 - 西部慶南 伽耶後期土器의 一様狀 -」, 『慶尙史學』 1, 1985. 6.

水精峰 3號 出土品<sup>15)</sup>, 河東 성평遺蹟 採集品<sup>16)</sup>과 類似하며, 口緣部가 수평면을 이루고 있음을 볼때 이와 類似한 口緣部를 가진 水平口緣壺와 同時期의 資料로 보인다. 또 圖面5~②는 筒形器臺로서 晉陽 배만골 채집품, 晉州 加佐洞 1號墳, 固城 栗岱里 2號墳<sup>17)</sup>에서 보이는 資料와 相通하는 것으로서 鉢形器臺와 비슷한 시기의 것들로 추정된다. 이들 2類의 器臺는 모두 晉州地域 伽耶土器文化의 一樣狀을 표방하는 기종으로서 이 地域의 대표적인 資料이다. 또한 이들은 대개 圖面3~⑥의 鉢形器臺가 水平口緣壺와 圖面5~②가 打捺文短頸壺와 組合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4) 蓋

雨水里遺蹟에서 채집된 蓋는 꼭지의 形態와 드림부의 形態에서 地域의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꼭지는 상연과 하연의 꼭이 거의 비슷하거나 상연이 약간 뛰어난 形態로서 前時期의 보주형 꼭지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身部の 上面에는 列點文이 주로 施文되어 있으며, 드림이 길게 외경하며 단부내연에 흠상의 단이 지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들과 유사한 資料로는 晉陽 院堂遺蹟, 晉陽 배만골遺蹟, 晉州 加佐洞古墳, 泗川 禮樹里古墳 등에서 다수 보인다.

## 2. 編年

雨水里遺蹟 採集資料들에 대한 器種別 屬性을 分析해 본 結果, 이들 資料는 대부분 地域的 特性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시간적인 차이에 의해 古·新式의 2段階로 크게 나누어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資料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요소의 分析과 기왕의 研究成果 등을 토대로 하여 각 段階의 대체적인 年代를 추정하고자 한다.

透孔高杯(圖面2~①, ②)는 臺脚의 形態가 筒形高杯의 型式系統을 따르며, 소위 古式陶質土器의 特征적인 현상 중의 하나인 菱形의 透孔技法이 존재하고 있음과, 杯部의 形態 역시 口緣部 狀態, 杯身의 만곡상태 등으로 보아 雨水里遺蹟 採集資料 중에서 가장 古式의 段階에 해당되며, 특히 古式陶質土器 共通樣式期인 4世紀 後葉~5世紀 前葉에 해당되는 표식적인 資料로 생각된다.

三角透窓高杯는 有蓋式에 있어 口緣端部 및 뚜껑받이턱의 처리, 臺脚의 形態 등의 차이에서 古·新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圖面2~④가 口緣端部가 둥글며 뚜껑받이턱이 둥글고 길게 돌출하는 요소와 臺脚에 명확한 突帶가 둘러지는 것으로 보아 古式에 해당되며, 圖面3~①은 臺脚 突帶의 形式的인 처리와 口緣端部 내연에 1조의 홈이 둘러지는 것으로 보아 新式에 해당된다. 특히 圖面4~①-④는 燒成상태가 불량하며 전체적인 器高가 낮고 臺脚의 突臺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아 新式 중에서도 늦은 시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無蓋式도 역시 口緣端部의 形態, 杯身의 形態 등에 의해 古·新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圖面2~⑤, ⑥이 古式에 해당되고

15) 朝鮮總督部, 『朝鮮古蹟圖報』第3冊, 朝鮮總督部, 1916, pp.227~292.

16) 慶尙大學校 博物館, 「河東郡 辰橋面 地表調査報告」, 『河東古梨里遺蹟』, 1990, p. 102.

17) 김정완·권상열·임학중, 『固城栗岱里2號墳』, 國立晉州博物館, 1990.

나머지는 모두 新式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一段長方形透窓高杯는 모두 新式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圖面5~③이 臺脚의 투창이 4개이고 燒成상태가 양호하며 臺脚高가 8.0cm 이상인 것으로 보아 慶南西南地域 一段長方形透窓高杯의 型式分類에서 I 段階에 해당되며<sup>18)</sup>, 圖面4~⑤는 杯身에 각기 수법이 이루어지고 器高가 작아지는 점 등에서 圖面4~⑦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水平口緣壺는 모두 頸部가 직선적인 꺾임으로 口緣部가 부분적으로 수평면을 이루는 전형적인 段階로서 다음 段階의 口緣部가 외절하는 資料(圖面6~⑦) 보다는 앞서는 型式이다. 또 圖面3~⑤는 頸部の 꺾임이 완만하여 口緣部の 수평화가 미미하므로 雨水里遺蹟 採集資料 중에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鉢形器臺 역시 口緣部の 처리와 共伴關係 등으로 보아 水平口緣壺와 同一段階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이들은 모두 新式段階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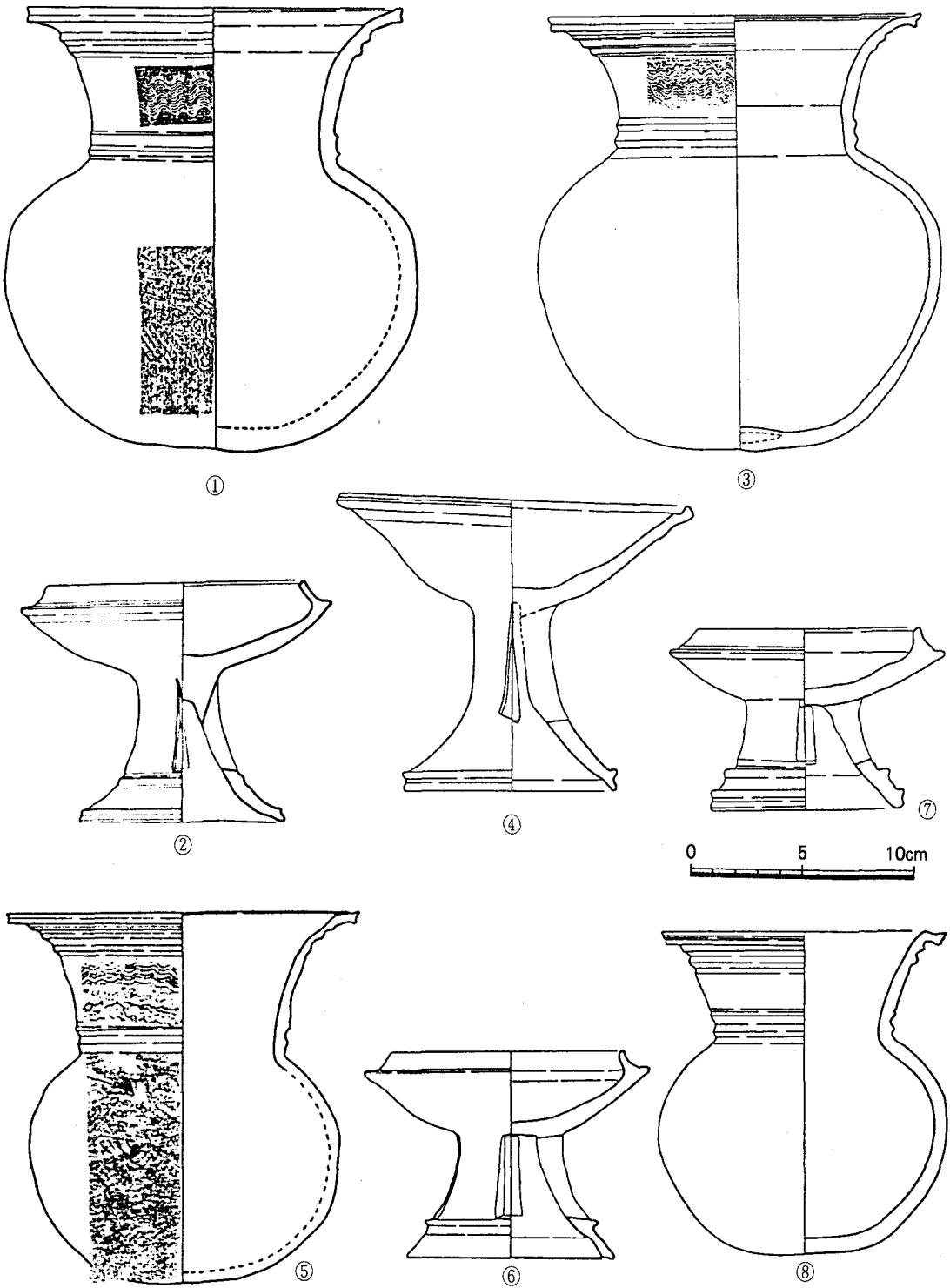
이러한 표식적인 資料의 檢討 이외에도 共伴關係를 통해 檢討해보면 이들 資料 중 일부는 E區 1號 도굴갱에서 함께 수습되었는데 이들은 同一遺構의 매납품으로 보이며, 또 이들에 대한 각 기종별 型式分類의 檢討에서도 대부분 동시기의 資料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角透窓高杯(圖面3~①, ②), 水平口緣壺(圖面3~⑤), 臺附壺(圖面3~⑦), 器臺(圖面3~⑥), 蓋(圖面3~⑤)는 모두 동시기의 資料임이 파악된다.

아울러 晋州地域 土器文化圈의 다른 遺蹟에서도 共伴關係에 의해 相對的 編年關係가 확인되는데, 晋陽 배만골遺蹟, 晋陽 院堂遺蹟, 泗川 沙村里遺蹟, 咸安 舍村里遺蹟에서 一段長方形透窓高杯, 三角透窓高杯, 水平口緣壺 등이 共伴되어 채집된 바 있다. 이들의 共伴關係는 圖面6과 같으며, 이들 遺蹟의 器種間的 組合狀과 相對年代의 設定에 있어 示唆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檢討에 의해서 雨水里遺蹟 採集資料는 크게 古·新式の 段階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으며, 각 段階別 해당자료와 年代는 다음과 같다.

- 古式段階：透孔高杯와 三角透窓高杯 古式이 해당되는데 年代는 대체로 4世紀 後葉에서 5世紀 前半의 共通樣式期에 해당된다.
- 新式段階：三角透窓高杯 新式, 一段長方形透窓高杯, 水平口緣壺, 器臺, 蓋, 臺附壺 등 晋州地域의 특징적인 資料들이 존재하는 시기로서 그 年代는 각 器種에 대한 研究成果에 의해 대체로 5世紀 後半에서 6世紀 前葉에 해당된다. 또 이 段階에는 晋州地域의 土器文化가 地域色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그리고 新式の 段階는 資料의 세부적인 檢討와 더불어 앞서 살펴본 共伴관계에 의해 段階의 세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한정된 採集資料에 대한 檢討이므로 더 이상의 세분은 생략하고자 한다.

18) 朴升圭, 註14)의 前掲書, 1991. 12.



圖面6. 도굴갱 채집자료의 共伴狀態(①②: 晉陽 院堂 3號 도굴갱, ③④: 咸安 舍村里 1號 도굴갱, ⑤⑥: 晉陽 배만굴 2號 도굴갱, ⑦⑧: 泗川 沙村里遺蹟)

### III. “晉州式”土器文化의 檢討

#### 1) 5世紀代 伽耶土器文化의 變遷

5世紀代 伽耶土器文化의 變遷에 대해서는 地域別, 또는 器種에 따른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볼때는 일정한 變遷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시기의 土器文化를 檢討하기 위해서는 먼저 前段階인 古式陶質土器 段階의 變遷 樣相을 檢討한 후에 이와 연동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古式陶質土器는 대체로 4世紀代의 土器文化임이 알려져 있으며<sup>19)</sup>, 아직까지 이 段階에 대한 명확한 실체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狀態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 역시 실질적인 資料의 分析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古式陶質土器는 文化圈의 統合樣相에 의해 2期로 나눌 수 있는데, 1期는 4世紀 前葉~中葉의 地域特性을 가지는 代表地域 土器文化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諸地域 勢力들의 1段階 統合으로 인해 伽耶內 代表的인 勢力들이 성립된 段階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代表地域은 金海·咸安地域 등을 들 수 있겠으며<sup>20)</sup> 高靈·晉州·昌寧등 기타 地域에 대해서는 이시기의 資料 부족으로 인해 代表地域의 형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2期는 4世紀 後葉~5世紀 初의 共通樣式的인 土器文化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伽耶諸國의 2段階 통합에 의한 발전된 聯盟體가 이루어졌으며, 이시기부터는 앞서기의 地域의 特性和 통합에 따른 共通의 要素가 융합되어 共通樣式的인 土器文化가 각 地域마다 존재하는 시기이다.

이상의 前段階 土器文化에 대한 檢討를 토대로 하여 5世紀代의 伽耶土器文化의 전반적인 변천양상 역시 文化圈의 변동에 의해 2期로 나눌 수 있는데, 1期는 5世紀 前半代의 시기로서 前段階의 共通樣式的인 문화상을 계승하여 전반적으로 共通樣式的인 土器文化要素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로서, 地域에 따라서는 共通樣式的인 要素의 수용상태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期는 5世紀 後半代로 1期와는 달리 諸地域의 정치적 문화적 성장에 따른 독자적 문화요소가 강조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獨自性의 형성 배경에는 伽耶 주변세력의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5世紀 後半代에는 5世紀 前半代의 共通樣式的인 土器文化要素 보다 地域的 獨自性이 小地域 特性을 가지는 土器文化를 형성하게 되며, 慶南西南地域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상의 變遷과 연동하여 5世紀 後半代에는 咸安, 高靈地域과 구별되는 土器文化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特性을 가지는 土器文化는 최근의 이 地域의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밝혀진 狀態로서 이를 “晉州式”土器文化로 設定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詳述하고자 한다.

#### 2) “晉州式”土器文化의 特性

雨水里遺蹟 採集資料 중에서 新式段階에 해당되는 것들은 晉州地域에서 5世紀 後半~6世紀

19) 安在皓·宋桂鉉,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考察」, 『嶺南考古學』 1, 1986.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대하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1986.

20) 金海地域은 短脚外反口緣高杯가, 咸安은 筒形高杯가 代表地域의 設定根據로 상정된다.



前葉에 걸쳐 地域特性을 보여주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資料의 分布圈 檢討를 통해 일정한 文化圈을 設定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들의 文化적 特性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종래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의 土器文化는 定森秀夫가 泗川 禮樹里古墳群과 固城 梧芳里古墳群 出土 土器의 檢討를 통해 “泗川·固城式”土器文化로 파악한 바 있으며<sup>21)</sup> 또 趙榮濟는 水平口緣壺의 檢討를 통해 文化圈의 확대를 피력하며 特定地域型式의 設定을 유보한 채 西部慶南 伽耶後期 土器文化의 一樣狀으로 파악하였다.<sup>22)</sup> 그리고 필자는 최근 一段長方形透窓高杯에 대한 檢討를 통해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의 土器文化가 주변의 高靈·威安地域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特定型式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晋州式”土器文化의 設定을 제의한 바 있다.<sup>23)</sup>

이러한 研究成果를 바탕으로 하여 晋陽 雨水里遺蹟 採集資料를 檢討해 본 結果 이들 資料는 모두 晋州地域 伽耶後期 土器文化의 特性을 잘 대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段長方形透窓高杯, 三角透窓高杯, 水平口緣壺, 器臺, 蓋 등의 地域的 特性을 가진 器種間的 組合狀도 잘 보여주고 있음이 파악된다. 또한 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資料들이 晋州 加佐洞古墳群, 晋陽 배내골遺蹟, 河東 古梨里古墳群, 固城 梧芳里古墳群, 山淸 中村里古墳群, 山淸 양전遺蹟, 宜寧 상산遺蹟, 威安 院北遺蹟 등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역시 5世紀 後半代 이후 주변 文化圈과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文化양상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晋州地域의 土器文化가 地域的 特性을 보여주는 요소로는 一段長方形透窓高杯가 高靈地域(III aA3)과 威安地域(IIIaA2)과는 型式的인 차이를 뚜렷이 가지는 晋州式(IIIaA4)이 존재함이 研究된 바 있으며<sup>24)</sup> 또 三角透窓高杯 역시 5世紀 後半이 되면 5世紀 前半代의 形態狀의 다양성에서 벗어나 晋州, 晋陽地域을 중심으로 한 일정地域에서 定型化된 型式으로 존재함이 밝혀져 있다.<sup>25)</sup> 아울러 水平口緣壺와 器臺, 蓋 등도 역시 주변文化圈과는 뚜렷한 型式차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에서 집중적으로 分布함을 알 수 있다.(圖面7 참조)

따라서 一段長方形透窓高杯, 水平口緣壺, 三角透窓高杯, 鉢形器臺, 筒形器臺, 蓋, 컵형토기, 廣口壺 등에 의해 型式的 特性을 내포한 器種間的 組合에 의해서 特定의 土器文化가 設定되며, 이러한 文化양상을 “晋州式”土器文化로 부르려고 하며, 앞으로 이 地域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경우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晋州式”土器文化는 앞서 살펴본 諸遺蹟에서 본 바와 같이, 晋州, 晋陽, 泗川, 固城, 河東 地方을 비롯하여 山淸, 宜寧, 威安의 일부 地域에서 일정한 分布圈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러한 晋州式 土器文化圈의 형성은 5世紀 後半에 들어가면서 5世紀 前半代의 伽耶土器 共通樣式的인 文化圈으로부터 분화됨으로 인해 이루어진 현상이며, 나아가 이러한 文化적 變化는

21) 定森秀夫, 「韓國慶尙南道泗川·固城地域出土陶質土器について」, 『角田文衛博士古稀記念古代叢論』, 1983. 4.

22) 趙榮濟, 註14)의 前掲書, 1985. 6.

23) 朴升圭, 註15)의 前掲書, 1992.

24) 朴升圭, 註13)의 前掲書.

25) 趙榮濟, 註7)의 前掲書, 1990. 12.

地域	器種別 代表型式	出土遺蹟
<p>晉州</p> <p>地域</p>		<p>1: 晉陽 배만골遺蹟</p> <p>2: 晉陽 雨水里遺蹟</p> <p>3: 晉陽 院堂遺蹟</p> <p>4,5,6: 晉陽 배만골遺蹟</p>
<p>주변</p> <p>地域</p>		<p>7,8: 高靈 池山洞古墳 44-5號古墳</p> <p>9,10: 高靈 池山洞古墳 35號墓祀遺址</p> <p>11,12: 成安 道項里古墳 14-2號墳</p> <p>13: 昌寧 桂城里古墳 1號墳</p>

〈圖面7〉“晉州式”土器文化和 주변地域 土器의 비교 (축척부동)

당시의 이 地域 정치세력의 變化를 짐작케 해 준다. 즉,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은 4世紀末~5世紀 前半代에 해당되는 威安 중심의 南部伽耶勢力圈(南部伽耶聯盟體 또는 中期伽耶)으로 부터 분화되어, 5世紀 後半代부터는 大伽耶 또는 阿羅伽耶에 대비되는 一國의 伽耶 또는 小地域聯盟體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考古學的 資料의 檢討에 의해 도출된 記錄이 명확치 않은 古代史의 많은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특히 伽耶史 研究는 伽耶古墳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격화됨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考古學的 조사는 아직까지 地域의으로 편중된 감이 없지 않으며, 문헌에 의한 研究 역시 똑같은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의 부진과 아울러 伽耶와 관련한 歷史記錄이 거의 없다시피한 晋州地域은 지금까지 伽耶史 研究에 있어서 실질적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研究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地域의 伽耶古墳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아울러 기왕에 확보된 資料들에 대한 공표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研究도 시도되어야 하겠다.

이에 本稿에서는 晋州地域의 伽耶史에 대한 一端을 解明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晋陽 雨水里 遺蹟의 採集資料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資料의 檢討를 통해 5世紀代의 晋州地域 土器文化의 파악과 함께 晋州地域 伽耶勢力의 政治的 位置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다. 이러한 檢討의 結果 晋州地域의 土器文化는 특정한 型式을 가진 기종들의 組合에 의해 5世紀 後半代에 “晋州式” 土器文化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分布圈은 晋州를 비롯한 慶南西南地域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한 型式을 가진 기종의 組合과 특정한 分布圈의 형성이 5世紀 後半代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晋州地域에 특정의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後期 伽耶의 諸勢力 中の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一介 遺蹟의 採集資料에 대한 考古學的인 檢討를 통해 特定地域의 古代文化 나아가 古代史를 논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考古學的 結果에 문헌적인 검토가 더해져서 보다 발전적인 研究 結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